DENTAL NEWS

## 全國市道 支部長 協議會

# 教育部의 강릉齒大新設 許可, 강력히 反對!

## -會員은 어느누구도 교수요원確保에 협조하지 않을것-

齒協은 교육부의 강릉대 치대신설 허가조치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는 성명서를 채택한데 이어 교수요원확보에 협조하지 않는 등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응방안들을 강구하여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로 했다.

전국시도 지부장협의회는 최근 채택한 결의문을 통해 「치과의사의 과잉배출은 무치의지역해소나 치과의료 인력의 균형적 공급을 기하기 보다는 의료기관의 도시집중화를 초래, 상술성(商術性)의료행위와 의료인 사이의 경쟁조장으로 의료의 질을 떨어뜨림은 물론 의료질서를 파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지금은 치과대학 신설이 급한 것이 아니라 기존 치과대학에 대한 지원과 투자를 강화하는등 교육여건을 보강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부장들은 이어 「지역이기주의에 편승한 몇몇 정치인의 공약이행을 위한 결정으로 우리 치과의사가 희생될 수 없음」을 천명하고 교육부장관은 강원도내의 치대신설 인가를 즉각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지부장들은 「우리 1만 치과의사는 신설치대의 교수요원 확보에 협조한다는 것이 바람직한 치과의사를 양성하는 면에서나 국민구강보건 향상을 위해서나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우리 회원중 누구도 신설치대의 교수요원 확보에 절대로 협조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강릉치대 신설은 전 치과인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치협은 정부에 대하여 문서상으로 항의함은 물론 시도지부장회의를 긴급소집하여 이에 대처하는 한편 각 지부에서도 연판장이 쇄도하고 있다>